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橋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토요일 영어챗트 후기 초급 ※사전신청 필요

초심자 대환영 회화수업

토요일오전은, 영어로 회화를 즐겨봅시다!

(※영어 챗트는 영어교실이 아닙니다. 또 외국인 자원봉사자분도 영어권 외국분들만 계신건 아닙니다.)

◇일 시 : 10/19,11/2,11/16,11/30,12/14,1/11,1/25,2/8

토요일 총 8회 10:30~11: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을 「영어챗트 초급」로 써주세요.

◇마 감 : 9월28일(토)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토요일 영어챗트 후기 중 상급 ※사전신청 필요

지금까지 학습 한 영어를 사용하여,다양한 나라의 사람과 영어로 이야기 합시다!

(※영어 챗트는 영어교실이 아닙니다. 또 외국인 자원봉사자분도 영어권 외국분들만 계신건 아닙니다.)

◇일 시 : 10/12,10/26,11/9,12/7,12/21,1/18,2/1,2/15

토요일 총 8회 10:30~11: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을 「영어챗트 중 상급」로 써주세요.

◇마 감 : 9월28일(토)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 후레이아 챗트 한국어 후기 초급 ※사전신청 필요.

이제 막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분들 대상입니다. 미야자키현 국제교류원의 박유진씨와 한국인 자원봉사자분과 한국어 세계에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일 시 : 11/7,11/21,12/5,12/19,1/16,1/30,2/13,2/27

목요일 총 8회 18:30~19: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마 감 : 10월24일(목)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을 「한국어챗트 초급」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초급· 초급 2

※사전신청 필요

현내 재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초급강좌를 개최합니다. 꼭 참가해주세요.

◇대 상: 초급:처음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분
초급2:히라가나, 가타가나를 읽을 수있는 분

◇수강료: 무료

◇교재비: 2,160엔 (세금 불포함)

◇일 시 : 9월3일(화)~11월28일(목)

초급 :10:10~12:00

초급2:12:40~13:40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25회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신청·문의: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연습 ※자유 참가, 무료

◇일 시 : 10:30~11:30

[수요일] 9/4, 9/11, 9/18, 9/25

[금요일] 9/6, 9/13, 9/20, 9/27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재주 외국인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테 마: 「나와 일본」

◇일 시: 11월 30일(토) 13:00~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참가자격: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

- ①현내재주의 16세 이상 외국인 일 것.
- ②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닐 것.

◇부문·정원: 일반부, 학생부 (총 10명)

◇표 창: 각 부문 우수자에게는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합니다.(오디언스상 있음)

◇응모마감: 10월18일(금) 필착 ※응모자 다수의 경우 선발

◇응모방법: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우편, Fax, E-mail(miyaifo@mif.or.jp)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로마자도 가능, 3~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소품 등 사용금지

◇응모·문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찬조회원모집!

연회비 2,000엔 단체:10,000엔



제14회 아트 페스티벌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작품전~ 개최 결정!

이번에도 미야자키현 내에 제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일본인이지만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의 사진·서예·회화·수공예품 그 밖의 부문으로 아트 작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훈훈한 작품을 기다리겠습니다.

◇일 시: 11/20(수)~11/30(토)

◇응모자격: 원칙적으로 미야자키에 살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뿌리를 둔 분

◇부 문: 사진, 회화, 서예, 수공예·기타
(작품의 테마는 “미야자키”)

사진은 데이터도 가능, 미야자키현에서 촬영한 것에 한함(데이터의 경우, 협회에서 최대A4 칼라 인쇄)하며, 협회에서 인쇄한 사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품가능 작품수: 1인당 2점 이내

◇사이즈: 50cm×50cm이내

◇응모방법: 우편, 직접 접수 또는 E-mail
신청용지에 이름(후리가나)·출신국가·연락처·작품명·소재·작품 설명문(50자 이내)·응모부문 등을 기입 후, 작품과 함께 응모. 우편의 경우: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보내기 직접 접수할 경우: 다음의 기관에 직접 접수



①(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②미야자키대학 글로벌 서포트 오피스

◇표 창: 작품전에서는 관람객들의 투표로 선정된 각 부문 상위입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응모마감: 10월19일(토)

◇표창식: 11월30일(토)

◇개최장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신청·문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서예 체험 ※무료

서예를 해 보고 싶은데 도구가 없으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에 「서예 코너」를 마련합니다. 서예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여러분, 꼭 방문해 주세요.

◇일 시: 9/3(화)~10/19(금) 10:00~19:00

※일·월요일·공휴일 은 휴무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미야자키현국제플라자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제주 외국인 대상 방재 세미나※사전신청 필요·무료

2019년 7월에 집중호우로 니치난시, 미야코노조시 지역에 피난권고가 발령되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만약에 대비해 필요한 방재 지식을 배워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참가해주시시오!

◇일 시: 10월26일(토) 13:00~15:30

◇참가대상: 현내 제주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과 그 가족(일본인 동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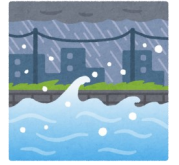
◇집합장소: 미야자키시 소방국미야자키히가시 모로카타현 광역방재 센터

◇참가비: 무료

◇내 용: 재해 관련 이야기, 지진 시뮬레이션 체험, 연기 체험, 방재어플 소개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를 Fax, 우편, E-mail로 당 협회로 신청해 주세요. 또한 메일로 신청 할 경우에는 제목을 「bousai」로 명기해 주세요.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편집후기

자연 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는 피난 훈련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지역에서 온 분들은 훈련 경험은 물론이고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방재강좌 중의 하나로 구마모토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유학생들의 경험담 강연이 열렸습지만, 지진 경험은 물론이고 ‘피난장소’라는 단어조차 몰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준비 할 수는 있습니다’라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외국 주민들에게도 피난 훈련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월26일 개최하는 재방 세미나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Y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비무장지대



국제교류원 박유진

여러분, 전 세계 중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군대 시설을 비롯해서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비무장지대(DMZ)입니다!

DMZ는 Demilitarized Zone으로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휴전하면서 휴전선에서 2km씩 뒤로 물러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요. 또 비무장 지대 안의 휴전선 가장 가까이에 판문점이라고 불리는 공동 경비 구역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만났던 곳이기도 하지요.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다녀오면서 DMZ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항상 교과서와 뉴스에서 접하던 곳을 직접 눈앞에서 보니,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딱딱하고 뾰족한 철망 너머로 망원경으로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DMZ까지 갔으니 판문점에도 꼭 직접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만, 판문점은 6개월 전에 사전 신청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방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판문점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언젠가 비무장지대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칼럼으로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며 다음 10월호 칼럼에서 또 만나요!